

천주교 나고야 교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처음에

국적은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들은 하나의 교회로 불러모아진 하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소책자는 인종과 국적의 차이를 뛰어 넘어, 나고야 교구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소속 성당 (교적이 있는 본당)

1. 소속 본당

일본의 천주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성당 이외에, 소속 본당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성당에 소속하는 것은, 신자에게는 소속 본당을 지원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속 본당의 사목적 배려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사, 어린이의 신앙 교육, 상담등을 소속된 본당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사, 고해 성사 등은 소속 본당 이외의 성당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입·전출

소속 본당이 없는 경우, 지역의 쉽게 갈 수 있는 성당에 가지어 교적을 만들 수 있도록 주임 신부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유아 세례나 첫 영성체를 할 때, 그 어린이의 교적을 만들며(신자 교적에 기입한다), 동시에 부모님의 교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자 교적에 기재된 내용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이 신자 교적과는 별도로, 많은 성당에서는 신자 명부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지만, 주소나 이름등 그 밖의 사생활을 지키고 싶으시면 신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십시오.

3. 이사 때;

이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길 때, 이사간 지역의 성당으로 교적을 옮깁니다. 소속되어 있던 성당의 주임 신부에게 연락하여 전출 증명서를 받고, 전입 지역의 성당 주임 신부에게 전출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외국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세례 증명서 등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헌금

일본의 천주교회는 신자수가 많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적은 신자들의 헌금으로 성당을 유지하고, 선교 사목활동을 하며, 사제의 생활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미사 중에 바쳐지는 헌금과 매월 정액을 본당에 납부하는 유지비(교무금) 등의 두가지 헌금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4. 미사 헌금

미사중의 헌금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속 본당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세계 각국의 여러 성당이나 천주교회의 여러 활동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5. 교무금

유지비, 교회비, 월정 헌금 등으로도 불리웁니다. 대개 월 수입의 3% 정도를 매월 자신의 소속 본당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성당의 유지 및 관리, 본당 활동, 사제의 생활비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사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몸인 교회안에 현존하시며, 지금도 구원의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특별한 상징에 의해 현실적인 것으로 되며, 이 하느님의 신비적인 활동을 우리들은 성사(聖事)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주일미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지역의 신자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에 동참하며,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감사하고, 주님의 식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모든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의무라는 차원도 있지만, 신자 서로가 더욱더 가까이 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필요로 하며,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돕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여 신앙의 유대가 확인되며 연대의식이 깊어지는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사회생활로 내 보내지는 것입니다.

6. 어느 성당의 미사에 참례할 것인가?

일본인, 영주(정주)자, 장기 체류의 경우는 자기가 소속된 성당에서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다른 성당의 모국어 미사에 참례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체류의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성당이나 모국어 미사를 거행하는 성당의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의 세례, 결혼, 견진등의 제성사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소속할 성당을 결정하여 주십시오.

각 나라 말 미사의 경우, 그 장소나 시간 등은 천주교회(성당)의 사제(신부)나 교구사무소, 혹은 나고야교구 난민/이주사목위원회등으로 문의 하여 주십시오.

7. 성체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작은 죄(소죄)는 용서를 받아 성체를 모실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고해성사 참조).

어린이 세례(세례성사)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하느님의 백성으로 되며, 또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물과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우고, 사실 하느님의 자녀인 것입니다(1 요한 3,1;로마 8,15).

일본사회는 그리스도교의 문화적인 환경이 충분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그리스도교 교인으로써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안에서 그리스도교적인 환경과 신앙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 자신이 미사에 참례하여, 교회 공동체와의 친교를 중요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일본의 가톨릭 교회는 유아(어린이)세례에 대하여 부모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권하고 있

습니다.

8. 성당의 주임 신부와 상담을 . . .

우선 소속 성당,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성당의 주임 신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성당에는 「세례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9. 세례 준비 강좌

주임 신부와 상담하고, 세례 준비 강좌를 가능한 한 부모와 함께 5~6 회 정도 받아 주십시오.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부모라고 하더라도, 동반자나 자녀들이 믿고있는 종교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 어린이 세례에 대해 알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준비 강좌는 일본어로 하고 있지만, 일본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강좌가 준비되어 있는 성당도 있기 때문에, 주임 신부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10. 세례 받을 날을 주임 신부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세례 준비 강좌가 끝나면, 주임 신부와 상의하여 세례받을 날자, 대부모등을 정하여 주십시오. 일본 천주교회에서는 여성에게는 대모, 남성에게는 대부를 한사람 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세례받을 날을 정하여 성당에 가더라도, 일본 천주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례를 받은 성당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견진이나 혼인(결혼)때에 세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례 증명서는 세례 받은 성당에 요청하시면 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

일본사회는 그리스도교의 문화적인 환경이 충분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기쁘게 생활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사에 참가하고, 주일 학교에 보내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 하는것이 그리스도교적인 환경과 신앙교육을 받게하는 것의 기초가 됩니다.

11. 가정에서의 기도

가정에서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유년기때부터 잠자기 전의 기도나 식사전후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길수 있도록 이끌어 언제나 우리들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12. 주일학교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소속 성당의 「주일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학생이 되면 학교 교육이나 클럽활동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성당에 다니는 것이 어려울수도 있으나, 아이들과 자주 대화하여 아이들 자신이 신앙을 깊이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첫영성체

우리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깊이하여 갑니다. 동시에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하며,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속죄받아, 하느님께 봉헌된 교회와 결합되어 갑니다. 또한, 보다 풍요롭게 성령이 주어져, 전 인류가 하느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13. 첫 영성체 시기

자녀들이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그 이해력에 따라 성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연령(통상 7세 이상, 초등학생)에 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14. 첫영성체 준비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성당의 「주일학교」나 「신앙을 어린이에게 전하는 여러 경우」(첫영성체 교리반)에서 어린이의 이해력에 상응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임신부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의 견진성사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성부의 선물인 성령의 은총을 받아, 주님을 더욱 닮은 사람이 되고, 성령에 충만하여 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세례 때 고백한 신앙에 따라 살고, 세상안에서 말씀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15. 견진시기

일본에서는 유아세례의 경우, 세례를 받을 때 견진성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식별할 수 있는 연령(10~15 살)에 이르면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임 신부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16. 견진준비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에 관하여 배우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소속되어 있는 성당의 주임 신부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17. 견진예식

나고야 교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주교님께서 견진예식을 집전하십니다. 견진의 일정에 대해서는 주임 신부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결혼

결혼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남녀의 합의와 서약에 의해 성립되며, 사랑과 충실에 바탕을 둔 해소할 수 없는 유대관계로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엄숙한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하며, 그 생활은 자녀의 탄생과 육성의 장(場)으로서, 사회안에서 독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장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의 결의를 표명하고, 서로간의 유대를 맺으며, 은총과 축복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18. 자신이 속해 있는 성당에 상의 한다.

가톨릭 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성당에서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선 주임 신부에게 상의 해 주십시오. 만일 소속 본당이 아닌 다른 성당에서 예식을 거행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주임 신부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소속 성당이 없을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성당 주임 신부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19.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결혼(혼인)예식을 신청하는 경우, 주임 신부의 지시에 따라서 「결혼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입하여 주임 신부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 예식을 위해 필요한 서류(혼인 성사를 위한 세례 증명서)를 준비 하여 주십시오. 외국 국적을 소유하고 계신분의 경우, 민법상의 결혼때에 필요한 「결혼 요건 구비 증명서」 (재 일본 본국 대사관 발행)등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 결혼 강좌를 듣는다.

교회가 책임을 지고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또한 보다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위하여 「혼인강좌」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 강좌는 각 성당에 따라서 내용, 방법, 언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임 신부에게 상의하여 주십시오.

21. 두 당사자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결혼과 신앙 생활에 관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비신자와의 결혼의 경우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문화나 생활습관, 가족관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재혼의 경우에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재혼을 하는 경우라면 주임 신부에게 그 사실을 말씀 드리고, 새로운 결혼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로하는 수속/절차를 밟도록 해 주십시오.

23. 국제 결혼의 민법상의 절차

외국인끼리, 혹은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에 관한 민법상의 절차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성당의 신부, 교구 사무소, 혹은 나고야 교구 「난민/이주 사목 위원회」 등에 문의 하여 주십시오.

고해 성사

24. 고해 성사

적어도 1 년에 한 번은 고해 성사를 받아 주십시오. 어느 성당에서라도 고해 성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성당에서 사순절이나 대림절에 미사중 참회예절을 거행하여, 개별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피정 등에 참석하여 고해 성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모국어로 고해 성사를 받고 싶으신 분은 주임 신부나 성당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병자 성사

25. 병자 성사

중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했을 경우, 혹은 노인으로서 몸이 쇠약해졌을 경우 등, 병자 성사를 받기 위해 사제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주 그리스도께, 성령의 은총에 의한 도움, 죄의 용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구원을 기원합니다.

임종 세례

26. 임종 세례

죽음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희망한다면 임종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제를 부르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사제가 아니라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면서 이마에 물을 붓습니다. 그 후 성당의 사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장소등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장례

27. 죽음의 준비

중병이나 사고 등으로 죽음이 임박해 있을시에는 소속성당, 혹은 가까운 성당의 신부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노자성체, 병자 성사, 고해 성사, 그 밖의 상담등을 의뢰 하실 수 있습니다.

28. 돌아가시면;

교우가 돌아가신 경우, 임종하신 분의 소속 성당 사제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택등에서 임종하신 경우, 의사의 사망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나 119 번 등에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사망 진단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성당등으로 운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29.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밤샘(通夜), 장례(고별식), 화장(火葬) 순으로 이루어진 후, 얼마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납골을 합니다. 매장에 의한 장례는 그다지 행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30. 시신을 모국으로 모셔가고 싶으신 경우;

시신을 모국으로 모셔가고 싶으신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 친척, 친구분 등과 상의 하신 후에, 주임 신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또한, 재일 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시고, 시신을 모국으로 모시기 위한 절차를 상의하여 주십시오. 시신을 모국으로 모시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책자는, 천주교 동경관구회의에서 승인된 천주교의 신앙생활, 특히 성사등에 관한 내용을 집약한 소책자를 자료로, 나고야 교구의 실상에 맞추어서 재편집 한 것입니다.

오서오세요 나고야교구에
천주교 나고야 교구 교회생활 가이드 라인(신도용)
2003년 6월 5일 초판발행
편집책임:천주교나고야교구사제평의회
연락처 :461-0004 나고야시 히가시구 아오이 2-6-35
천주교나고야교구센터
교구본부사무국
Tel:052-935-2223 Fax:052-935-2254
curia@nagoya.catholic.or.jp